85년도 石油政策 方向

夫 太 煥
〈動力資源部 資源政策室 石油政策課長〉

Ⅰ. 世界石油市場의 동향과 전망

1. 80년대 世界石油市場의 변화

① 85. 2. 1 原油価 인하의 意味

80년대는 지난 10년간 世界石油市場을 주도해온 OPEC의 「카르텔 기능 약화」와 두 차례에 걸친 「원유価 인하」의 두가지로 그 特質을요약할 수 있다.

지난 1월 30일에 끝난 제 72次 OPEC 총회는 그 동안의 基準油価(아라비안 라이트 : 1배럴当29달러) 制度를 폐지하고 超 軽質油와 重質油間의 価格 差異를 종전의 배럴당 3.70달러에서 2.40달러로 축소함에 따라, 主要油種別 価格은 배럴당 최소 0.25달러에서 최대 1.35달러까지 인하되었는데 이러한 措置는 1983. 3월 당시 基準油価이던 아라비안 라이트 가격을 배럴당 5달러 내린 이후 두번째이다.

OPEC 會員国間의 의견대립과 OPEC産油国 및 非OPEC 産油国間의 利害相衝으로 혼미를 거듭해 오던 国際原油価体系는 이번의 油種間 価格調整으로 次期 OPEC총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油価체계가 OPEC 石油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油価 引上의 轉機를 마련해줄 것이라는 사우디 야마니 石油相의 發言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요 石油 去來商이나 분석가들은 앞으로 봄철 非需期까지 겹쳐 國際石油市場의 油價는 계속 약세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더우기 加重平均価格 基準으로 종전의 배럴当 28.25달러에서, 27.96달러로 불과 0.29달러 幅의 인하만으로는 弱勢化된 수요시장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급시장의 潛在的 불안요인이 공급 과잉 現象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追加 価格 인하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② 国際石油市場변화의 배경

OPEC의 油価 인하와 油種間 가격조정은 공급과잉하의 世界石油市場 동향에서 볼때 이미 예견되어 온 조치이지만, 第2次 石油波動 이후 전세계적인 景氣 침체와 에너지 消費節約 强化 및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 石油代替 에너지의 개발 확대, 低에너지 消費型 산업구조로의 개편등 소비국의 강력한 대처에 따른 石油需要 감퇴와 會員国間의 정치, 경제적 環境, 사회 문화적 体系 등 구조적인 갈등과 石油經濟를 둘러싼 利害 対立으로 인한 OPEC의 카르텔 기능의 약화 및 非OPEC 産油国의 공급능력 증가에 따른 市場 占有率의 확대 등 최근 몇 年間 石油情勢 변동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③ 1980년대 世界石油市場의 특질

1980년대의 国際 原油市場은 1970년대와는 市場構造面과 운용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공급이 줄어지면 가격이 오르고 供給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需要 供給의 법칙이 原油가격 결정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OPEC은 1970년대 전세계 産油量의 75%를 장악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市場占有率이 35% 이하로 떨어지고 非OPEC의 市場占有率이 높아감에 따라 OPEC과 非OPEC間의 市場 管理能力의 상호 견제가 작용하고 있다.

—原油에 있어서는 수요가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은 1970년대 기간중 높은 原油価 상승에 따른 신규 油田개발 확대등으로 過剩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設備高度化 推進에 따라 低硫黄 軽質原油의 選好度가 낮아지고 있다.

—石油製品의 경우 燃料油의 代替, 石油 利用효율의 향상 등으로 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수요구조도 전세계적으로 軽質化되어가고 있으나, 1970년대 精製施設 건설 확충의 결과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精製能力 감축, 設備高度化를 추진하고 있다.

—原油去來方式이 장기계약방식 위주에서 장기계약 및 現物去來方式으로 二元化되고 더우기 現物市場도입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가격할인, 바터거래, 외상기간 연장 등 거래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現物市場 価格이 実勢가격을 반영하여 長期契約 価格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石油수요 伸張勢의 둔화에 따른 石油 공급과잉 현상의 장기화, 精製施設의 遊休化, 산유국의 下流部門 진출확대, 石油 개발비용의 상승 등 石油産業의 경영여건 악화로 메이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石油業界가 구조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OPEC은 石油의 附加価値를 높이기 위하여 自国内 精製施設 확장과 소비국의 精製施設 매입 등 石油製品 市場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확장중에 있는 精製施設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1987년경에는 製品 輸出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国際石油市場 동향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世界石油市場 秩序가 재편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石油 環境의 전개에 따라 생산국과 소비국은 1980년대의 시장안정 기조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부로 부터의 挑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1990년대의 에너지 不足時代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중장기 石油情勢 展望

石油는 主宗 에너지源으로서 현재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40%, 自由世界 에너지 수요의 47%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1970년대 두 차례의 石油波動에도 불구하고 石油자원의 경제성과 便宜性, 代替 에너지 개발의 한계, 에너지 수요구조 조정의 硬直性, 新再生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개발의 불투명 등을 고려할 때에 금세기중에도 石油가 主宗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계속 담당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① 供給 展望

1983년말 현재 세계의 石油確認 매장량은 약 6,693億배럴로서 同年의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약 32년간의 可採年數에 該当되나, 과거 추세의 경우 매장량이 계속 증가하여 왔고, 앞으로도 신규 油田의 개발활동, 石油수요伸張勢 여하에 따라서

는 가채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가 있다.

절대적인 매장량의 한계와 부존지역의 偏在 등 생산측면의 制約 要件을 감안하면 自由世界의 石油공급량은 하루 53百万배럴 수준을 상회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비국이 2000年까지의 石油수요를 하루 53百万배럴 수준으로 억제하는데 성공하고 OPEC의 공급이 순조로울 경우에는 공급상 隘路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需要 展望

소비국은 두 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의 교훈과 새로운 石油 供給 중단위기에 대비하여 에너지利用 효율의 제고, 石油消費억제, 代替에너지개발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自由世界의 石油수요는 1980년대까지는 현수준을 유지하고 1990년대 이후에는 연평균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OECD諸国의 石油수요는 1983년의 하루 33.8百万배럴 수준에서 약간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하루 35百万배럴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OECD를 제외한 開途国에서는 工業化의 진전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2000년경에는 하루 18百万 배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表－1〉 自由世界의 石油需給展望

(單位：百萬Bbl/日)

區　　分	1982	1983	1990	2000
需　　要	45.2	44.4	49	53
○OECD	34.6	33.8	35	35
○開途圈(OPEC包含)	10.6	10.6	14	18
供　　給	44.7	44.3	49	53
○OECD	15.3	15.8	15	13
○OPEC	19.8	18.4	24	29
○非OPEC開途國	7.0	7.3	9	10
○共產圈으로부터의 輸入	1.5	1.6	0.5	0
○其　　他	1.1	1.2	1	1

〈資料〉 IEA.

③ 価格 展望

石油가격에 관한 전문기관의 一般的 견해에 따르면, OPEC 石油수요의 증가 및 가격조절 기능의 회복, 세계경제의 景氣회복과 石油수요의 증가, 이란—이라크戰의 확대, 中東 政治 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한 돌발적인 石油 생산중단 등과 같은 위기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분간 현재의 가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石油공급 과잉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도 장기 실질 利子率 수준인 3% 정도의 率로 상승될 것이다.

〈表－2〉 石油実質 価格上昇率 展望

(單位：실질가격의 年平均上昇率, %)

展望機關	1984~1985	1986~1990	1991~2000
動 資 研	－ 3.3	3.0	3.0
I E A	－ 3.3	3.0	3.0
D R I	－ 6.3	3.7	3.7
N E P P	－ 5.6	7.8	6.0

3. 1985년도 需給展望

85년에 들어와서 北半球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石油수요 회복세가 미약하고 세계 경제의 成長勢가 다소 침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今年度 石油수요 증가는 연평균 0.5%의 수준에 머물 것이고 특히 봄철의 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OPEC의 생산량은 작년 수준을 상회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수요증가분은 非OPEC의 생산분에 의하여 吸收될 것이다.

Ⅱ. 중장기 石油政策의 課題

1. 石油政策의 基本 目標

石油에너지는 국민경제활동에 필수불가결한 基本材로서 생산·成長·物価·국제수지 등 經濟部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공업화 진전과 国民所得 향상에 소요되는 石油의 안정공급은 에너지 경제정책의 중요한 추진과제이다.

더우기 에너지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石油 依存度 減縮」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우리 경제의 石油의존도를 현재의 56.2%에서 2001年에는 40% 이하의 수준으로 낮출 계획으로 있으나, 石油資

〈表－3〉 1985年度 自由世界 石油需給展望

(單位：百萬B/D)

區分	1984					1985				
	1/4	2/4	3/4	4/4	年平均	1/4	2/4	3/4	4/4	年平均
總需要	47.5	44.5	45.0	46.5	46.0	48.0	44.9	45.3	47.2	46.3
總供給	46.0	46.2	45.2	45.5	45.7	46.1	45.4	46.3	47.2	46.3
○非OPEC供給및NGLS	28.0	28.2	28.4	28.7	28.3	28.6	28.7	28.8	29.0	28.8
○OPEC供給	18.0	18.0	16.8	16.8	17.4	17.5	16.7	17.5	18.2	17.5
○需要增減率(%)	+ 3.5	+ 2.5	+ 1.5	− 0.5	+ 1.5	+ 1.0	+ 1.0	+ 0.5	+ 1.5	+ 0.5

〈資料〉 PIW.

源의 属性과 비중 때문에 금세기중에도 主宗 에너지로서 위치를 지켜나갈 것이며, 절대물량면에서도 현재의 하루 520千배럴 수준에서 990千배럴 수준으로 약 1.9倍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1983년 기준으로 에너지 輸入額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石油의 안정확보가 石油政策의 기본 목표가 될 것이다.

2. 중장기 石油政策의 과제

① 原油導入의 效率性 提高

原油導入政策을 運用함에 있어서는 소요원유의 안정확보를 기조로 国際石油市況의 변화를 기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 있는 低価 原油 도입을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장기안정적인 原油도입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精油會社도 자체 所要原油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原油導入先 다변화시책을 계속 추진하여 所要原油의 40%까지 非中東 地域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石油備蓄 등 危機管理能力의 향상

石油備蓄은 政府備蓄과 民間備蓄을 合하여 1988년까지 110日分 수준으로 제고하고 그 후에도 油田개발성과, 原油導入先 다변화 정도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수준의 비축을 유지할 것이며, 비축사업의 추진주체도 지금까지의 政府備蓄 위주에서 외국과 같이 民間備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原油비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수급구조의 변화와 油種間 代替性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製品備蓄을 확대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中東事態 등으로 인한 단기적이고도 일시적인 石油공급 또는 輸送中斷에 대비하여 기동성 있는 체계적 非常時 石油需給管理対策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③ 軽質製品의 供給能力 확충

發電 및 産業부문 연료의 有煙炭, 原子力, LPG 代替,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家庭·商業 연료의 고급화 및 차량 증가에 따른 수송부문소요 연료의 증가 등 요인으로 石油수요의 輕質化가 진전되고 輕·重質油 製品間의 수급불균형이 深化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輕油를 포함한 軽質製品의 수급안정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軽質製品 또는 原油의 수입, 軽質油 분해시설의 설치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앞으로 国際 石油市況의 동향과 OPEC의 製品輸出능력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기본적으로 軽質油의 장기안정적 확보를 위하여는 適正수준의 重質油 分解施設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軽質油수요 증가와 함께 기존 油類 수송수단의 수송능력 애로를 보완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瑞山－天安, 麗水－서울, 蔚山－大田間 總延長 817km의 장거리 送油管건설이 필요할 것이다.

④ 자주적 石油 공급능력 確保

本源的인 石油안정확보를 위하여 2001년의 「石油 自主供給率 10%」 달성을 목표로 국내외 石油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내 大陸棚 海域에 대한 탐사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民間主導型으로 해외 石油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가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內国 法人의 持分參與 제한과 콘소시엄 방식의 개발을 勸奬해 나갈 계획이다.

⑤ 油価制度의 점진적 自律化

현행 油価管理制度의 골격은 1970년대 정부주도의 經濟成長 基調와 石油波動期를 지내면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운용기조가 민간주도형의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政策運用面이나 현실 경제 적응면에서 油価制度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油価制度는 현재의 정부 직접규제방식으로 부터 間接規制方式으로 轉換하고 市場競爭 原理에 의한 自動調節 기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精油産業의 경쟁력과 石油流通의 능률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油価自律化를 일시에 실시할 수 있는 시장의 受容能力이 미흡하고 輸出入 등 需給管理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의 개선이 先決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⑥ 精油産業의 구조개편

石油산업은 石油수요의 둔화에 따라 精製施設의 稼動率이 낮아지고 經營與件이 악화되고 있는데다가 일부 油種의 과잉 현상은 수직적 · 수평적 경쟁을 가열화시키고 있는 등 내부적인 장해요인과 함께 石油需要 구조의 軽質化에 따른 設備 高度化, OPEC의 製品輸出 능력 증가, 가스 등 다른 燃料의 경쟁력 향상, 国際 金利 및 換率의 상승 등 외부적인 挑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国内 精油산업은 経營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外国 精油산업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 장기적인 構造 改編작업을 추진하여 成長 産業으로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⑦ 石油 流通構造의 합리화

현행 石油 流通구조는 계열화의 부분적인 瓦解로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이익이 注油所 단계에서 단절되고 기존의 流通市場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한 過当 競爭으로 流通秩序의 문란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石油 流通構造 합리화를 위한 制度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합리화의 방향을 製品 需給의 안정성, 流通 経濟의 효율성, 流通機構間 공정경쟁 체제의 확립 등에 두어야 할 것이다.

⑧ 民間 부문의 창의적 活動 支援

民間主導방식에 의한 市場経濟 원리의 経濟政策運用 기조하에서 石油需給 및 価格의 관리, 石油 유통체제의 운용 등 石油 부문의 역할 遂行에 있어 市場 메카니즘을 歪曲시키는 정부의 관여를 줄여나가고 石油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民間企業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意思 決定과 経營활동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能率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와 民間企業의 기능을 적정히 분담하여 業界 스스로 자율적인 問題 解決 능력을 함양해 나가고 정부의 지원이나 관여에 의존하는 자세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Ⅲ. 1985년도 石油부문 주요 업무 계획

1. 에너지政策 推進의 方向

제5차 経濟社會發展 5개년 계획을 1년 남겨 놓은 1985년도 우리 経濟의 운용방향은 「새로운 도약」을 본격화한 견실한 成長 지속, 物価安定基盤 정착, 꾸준한 国際收支 개선 등 지난 해의 성과를 土台로

—7.5%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고

—都売物価 1～2%, 消費者物価 2～3%의

안정으로 物価安定 심리를 정착하고

—経常收支 적자를 5～7억달러 수준으로 축소하는데 있다.

1985년도 에너지 経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우리 経済가 요청하고 있는 政策基調를 바탕으로

—消費節約政策을 더욱 가속화 하고

—低価 供給 체계를 확립하여

—자주적 供給기반을 확립하며

—需要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고

—技術開發을 강화하며

—市場競爭 질서를 확립하고

—品質管理 및 安全管理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政策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石油부문 주요 業務 계획

① 軽質油제품의 경제적 공급 方案 강구

국내 需要構造의 변화로 軽油 등 軽質製品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設備 고도화 未備로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軽質油 공급확보 방안으로서는 軽質原油 또는 製品 도입과 重質油 分解施設의 설치가 있으나, 国際石油시장의 需給 및 価格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適正수준의 軽質油 자급능력 확보가 불가피하므로 1987년까지는 현재 設置중에 있는 시설을 건설하여 우선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1988年 이후에는 두가지 방안의 経済性과 국내 自給率 등 關聯事項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한편 장거리送油管 건설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專門機關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관업계의 의견을 참작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事業主体, 建設시기 등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할 計劃이다.

② 市況에 適切히 대처하는 輸入制度 運營

—原油導入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国際市況에 따라 安定供給과 경제적 供給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長期契約 도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現物市場을 적극 활용하여 현물시장 도입 비중을 지난 해의 22%에서 25% 이상으로 높여가는 한편, 原油導入先 多辺化를 계속 추진하여 中東 의존도를 64%까지 낮출 計劃이다.

—LPG의 대량 공동수입체제 운영으로 対外 交涉力과 経済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85. 5월에 제1차 공동수입 회사를 發足시키고 제2차 공동 수입 회사 設立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石油開發事業의 本格 推進

—국내 大陸棚 開發에 있어서는 제4광구에 대한 物理探査와 제5광구에 대한 物探資料 解析 및 韓·日大陸棚 共同區域中 제7, 8小区域에 대한 2개공의 시추를 계획하고 있다.

—海外 油田개발에 있어서는 85년 上半期中에 印尼 西마두라 鉱区에서 石油생산을 개시하고 北예멘 마리브鉱区의 매장량 평가 및 生産施設 계획에 착수하며 印尼 아당鉱区와 모리타니아광구에서도 探査 試錐와 物理探査를 각각 추진하는 한편 石油開發基金지원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石油開發技術 蓄積을 통한 자주開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石油開發 참여 기관의 기술을 함양해 나갈 계획이다.

④ 偶發事態에 대비한 需給対策 보강

—石油備蓄事業을 계속 추진하여 政府備蓄 시설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備蓄油의 경제적 管理運用을 기할 계획이다.

—非常時 石油需給 관리대책을 補完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기적인 供給 中斷에 대비한 需給 對策을 보강하고 石油危機 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는 石油需要抑制 연습을 지난 해에 계속하여 금년에도 4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自家用 승용차 짝·홀수제」 운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⑤ 市場競爭 誘導

—油価管理 제도의 점진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나프타 価格의 国際価 連動制를 실시하고 換率 비중의 단계적 吸收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石油類 流通 부문의 適正 競爭基盤을 조성하기 위하여 流通機構의 機能 재정립과 統·廢合을 유도하고 販売 系列化를 추진할 계획이다.

—石油類 부문 公課金의 합리적 改編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政府部門의 비용을 축소하여 消費者 負擔을 경감하고 油種間 不均衡 賦課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시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⑥ 揮發油 유사製品 流通방지

현재 実施中에 있는 옥탄가 높은 솔벤트의 生産禁止 조치와 販売者와 消費者間 直去來 및 솔벤트에 대한 品質檢査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石油事業 法令을 改正하고 類似製品의 製造·販売·運搬 行爲의 申告者에 대한 褒賞制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揮發油 特消稅 인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⑦ 低硫黃油 供給 擴大

公害 감소와 高級燃料需要 충족 및 88올림픽 対備 環境保全 대책의 일환으로 低公害油 供給을 계속 확대하여 금년에도 1.6%와 2.5%의 B-C油 供給率을 각각 36%와 16%로, 0.4%의 軽油공급률은 63%까지 높일 계획이다. *

□ 海外石油開發動向 □

· 중공의 제2차 해양탐사 입찰

中共国營海洋石油公司(CNOOC)는 제2차 해양탐사 입찰에서 외국석유회사에 제공된 2개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했다.

이 2개 구역은 남지나해의 주강 하구 분지의 5만㎢에 달하는 12개 광구와 南黃海 분지의 4만3천㎢에 달하는 6개 광구이다.

CNOOC의 대변인인 Chen Bingquian씨는 中共이 제2차 광구입찰이 中小규모의 유전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회사로 부터 받는 기부 요구사항을 줄이므로서 "보다 신축성 있는 접근"을 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보다 바람직한 이익 분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는 밝혔다.

Chen씨는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면서 1982년 1차 입찰에서 석유회사들에게 부과된, 협상가능 사인 보너스가 전보다 더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석유회사들은 1차 입찰에서 1백만달러가 부과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Chen씨는 계약조항은 여전히 기술 이전과 기술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외국 회사들에게 요구하던 장비 및 자료와 같은 기부 요구사항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Chen씨는 기자회견에서 생산에 들어가는 최초의 유전은 중공과 일본의 해양 석유공사에 의해 북동 연안의 발해만에서 개발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유전은 금년부터 연간 최고 4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다.

프랑스의 Total사와 공동 개발한 두번째 유전은 1986년 부터 연간 60만~70만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 2개 유전은 제1차 국제 입찰 이전에 맺은 쌍무계약 협정에 따라 탐사된 유전들이다.

Chen씨는 9개국 22개 석유회사들이 Yingge Hai광구에 관한 지구 물리학적 자료와 기타 서류들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감일까지 추가 구입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바른마음 바른자세 다져지는 신뢰사회